

<25년 6월호>



Max News

MAX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Nxhxjcxj

말레이시아 (PEN) 오픈

프랑스 파리 (CDG) 오픈 예정

자세한 사항은 영업팀으로 문의 주세요.

Contact us

서울 영업팀 메일: E) sales.kr@maxlogis.com

-김민호 이사: E) mike.kim@maxlogis.com	H) 010-2988-6309	T) 070-5096-9367
-김희명 팀장: E) hmkim@maxlogis.com	H) 010-9281 0109	T) 070-5096-9389
-장명수 수석: E) simon.jang@maxlogis.com	H) 010-4437-5175	T) 070-5096-9387
-이정현 수석: E) anna.lee@maxlogis.com	H) 010-5833-5935	T) 070-5096-9363
-이진섭 매니저: E) david.lee@maxlogis.com	H) 010-8969-7433	T) 070-5096-9472

부산 영업팀 메일: E) bus@maxlogis.com

-최승린 지점장: E) steve.choi@maxlogis.com	H) 010-8619-5761	T) 070-5096-0585
-김민준 매니저: E) harry.kim@maxlogis.com	H) 010-2562-2617	T) 070-5096-0584
-박지선 매니저: E) amy.park@maxlogis.com	H) 010-2825-2252	T) 070-5096-0582

서 울

노선별 안내

미주 (BSA/LUZ/GCR) 및 중남미

미주 LAX/ORD/JFK 및 주요 노선 지역(ATL/DFW) BUP 프로그램을 진행

OZ 스케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BUP 작업 및 안정적인 Allocations 기반한 스페이스 제공

OAL 직항을 포함한 다양한 T/S OAL SVC (WS/UA/DL등)구간의 경쟁력 있는 운임과 서비스 지원

주요 미주 지역 외 캐나다(YYZ/YVR) 및 중남미 (MEX/GRU/BOG/SCL 외) 상품 서비스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JFK	OZ587	2230/0125+1 1500/1755 2230/0125+1	D2 D5 D7	DIRECT
	DL158 DL196	1920/1330	DAILY	DTW T/S SEA T/S
YYZ YVR	WS087	2045/1610	D146	YYC T/S
LAX	OZ284/OZ286 OZ282	2330/1730 2330/1730	DAILY	DIRECT
	YP101	1245/0820	DAILY	DIRECT
SFO	OZ212	2055/1530	DAILY	DIRECT
	YP111	1855/1200	D1357	DIRECT
SEA	OZ272	1820/1230	DAILY	DIRECT
DFW	OZ244 OZ242 OZ242	0330/0905 2300/0435+1 0900/1435	D2 D24 D7	DIRECT
	DL170 DL158	1840/1655 1015/1025	DAILY	MSP-ATL T/S DTW T/S
ORD	OZ244 OZ242/OZ248	0330/0430 2300/0005+1	DAILY	DIRECT
	DL158 DL170	1015/1025 1840/1655	DAILY	DTW T/S MSP T/S
ATL	OZ248	2300/0405+1 1600/2215	D37 D6	DIRECT
	DL188 DL026 DL170	1625/1710 1850/1935 1840/1655	DAILY	DIRECT DIRECT MSP T/S

서울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LAX	OZ284/OZ286	2330/1730,	D123456	DIRECT	작업일 17시	안범준 매니저 (070-5069-9441) 조대호 매니저 (070-5096-9342)
	YP101	1320/0720	DAILY	DIRECT	전일 17시	
	UA806	1245/0620	DAILY	SFO T/S (TRUCKING)	전일 17시	
SFO	OZ212	2050/1500	DAILY	DIRECT	전일 17시	강준환 매니저 (070-5096-9869) 왕유진 매니저 (070-5096-9886)
	YP111	1855/1200	D1357	DIRECT	전일 17시	
ORD	OZ244	2300/2255	D1	DIRECT	작업일 17시	
	DL158	0935/0840	DAILY	DTW T/S	전일 17시	양병규 매니저 (070-5096-9473)
ATL	OZ248	2300/0405+1	D357	DIRECT	작업일 17시	
	DL188	1750/1725	DAILY	DIRECT	전일 17시	
DFW	OZ244	2300/0335+1	D1	DIRECT	작업일 17시	양병규 매니저 (070-5096-9473)
	DL026	1925/1850	DAILY	ATL T/S	전일 17시	
JFK	OZ587	2230/0020+1	D2	DIRECT	작업일 17시	
	DL196	2005/1430	DAILY	SEA T/S	전일 17시	
YYZ/YVR	WS087	2045/1610	D146	YYC T/S	전일 17시	

메일: usa@maxlogis.com / 네이트온: maxkorea_airexp@nate.com / TEL: 02-3144-2289

** 5월 하반기 미주 향 화물 수요 일부 증가 - 미국 상호관세 한시적 완화로 중국 발 T/s 화물 수요 일부 증가

- 미국 상호관세 한시적으로 완화된 후, 5월 하반기 부터 전체적인 미주 향 화물의 일부 증가세
- 중국 발 수요는 급감한 상황으로 현 일시적 4월 상반기 성수기 후 화물 급감 및 시장운임 하락

** US 향 주요 OAL 항공사 선적 진행으로 인한 주요 T/s 노선 개발 중 (ws 집중 판매중)

항공사	운항노선	편명	기종	Frequency	ETD/ETA	Cut Off	Remark
WS	ICN-YYC	WS087	B787-9	D1,2,4,5,6	21:40-16:58	당일 14:00	19, MAY~12, OCT
				D1,4,5,6,7		당일 14:00	13, OCT~19, OCT
UA	ICN-SFO	UA 892	B777	Daily	18:00-11:35	당일 12:00	
		UA 806	B787	Daily	11:30-06:15	전날 17:00	
YP	ICN-LAX	YP 101	B787-9	Daily	13:20-07:20	전날 17:00	
	ICN-EWR	YP 131	B787-9	Daily	21:55-21:30	당일 14:00	
	ICN-SFO	YP 111	B787-9	월,수,금,일	18:55-12:00	당일 12:00	
DL	ICN-DTW	DL 158	A350-900	Daily	09:35-08:40	전날 17:00	
	ICN-ATL	DL 188	A350-900	Daily	17:50-17:25	당일 12:00	
	ICN-ATL	DL 026	A350-900	Daily	19:25-19:05	당일 13:00	
	ICN-MSP	DL 170	A350-900	Daily	19:30-16:50	당일 13:00	
	ICN-SEA	DL 196	A350-900	Daily	20:05-13:30	당일 14:00	
AC	ICN-YYZ	AC 062	B787-9	Daily	18:20-11:20	당일 12:00	
	ICN-YVR	AC 064	B787-9	Daily	16:55-09:55	당일 12:00	

서울

**** 일부 구간 (LHR, AMS) 수요 일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요 유지 중**

- 5월 하반기 미주 시장 대비, 유럽향 화물 수요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기존 수요 상황 유지 중이며, 6월 Trend에 대해서도 특별한 유동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FSC 안내

- 주요 EU 항공사 FSC 변경 (KRW)

CARRIER	FSC	VALIDITY
KE	370	25-05-16 ~ 25-06-15
CV/C8	1100	25-04-21 ~ 25-05-18
QR	370	25-04-16 ~ 25-05-15
TK	440	25-05-01 ~ 25-05-31

** 5월 EU 항공사 변경사항

- OR Other Charge 변경 안내 (25년 4월부 적용 예정)

Charge	Code	Currency	Original Rate	Revised Rate	Application
AWB Fee	AW	KRW	15,000	17,000	Per MAWB
Manual Data Transmission	CC	KRW	12,000	17,500	Per MAWB/HAWB
Electronic Data Transmission	CG	KRW	3,000	4,400	Per MAWB/HAWB
Manual Booking Fee	DF	KRW	22,400	36,420	Per MAWB
DG Check Fee	RA	KRW	150,000	165,000	Minimum of 2 pieces, from 3rd pcs added KRW 19,000 per piece. Dangerous Goods SHCs
ELI/ELM Check Fee	RA	KRW	150,000	165,000	Per MAWB
DDS Admin Fee	SA	KRW	150,000	165,000	Per AWB

- 2025년 CV 하계 스케줄 안내



Flights from Incheon



Airline	DEST	MON	TUE	WED	THU	FRI	SAT	SUN
Cargolux	LUX				CV7153 0400/1235		CV9015 0315/1725	CV7156 0400/1235
Cargolux Italia	MXP	C87111 0520/1720		C87113 1225/0025+1				
	LUX	C87111 0520/2215		C87113 1225/0615+1				
	CGO	C87111 0520/0700		C87113 1225/1405				
	TPE							C85097 0620/0805
	IAH							C85097 0620/1250

(All times are local times)

아시아(BSA/LUZ/GCR) 및 중일지역

주요 아시아 노선 (HAN/HKG/PVG)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운영

HKG 화물 별 특가 제공 및 TPE 행 특송 화물에 대한 안정적인 연발 스페이스 지원 가능

OZ PVG 및 HKG 그리고 HAN BUP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 및 서비스 제공

OZ 직항 이외 OAL 주요 운항 노선 프로모션으로 다양한 이원 구간 노선 서비스 구축 확보

서 울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PVG	OZ0987	화,목,토,일// 일자별 상이	DAILY	DIRECT
	OZ0947	월,수,금// 일자별 상이		
	OZ0361	DAILY 0900-1005		
	OZ0365	DAILY 1410-1500		
	OZ0367	DAILY 2000-2055		
	OZ0363	DAILY 1045-1145		
HKG	OZ745	월~일 1925-2240	DAILY	DIRECT
	OZ721	월~일 0900-1200		
	OZ967/OZ969	화,수,토,일1050-1355/2340-0245+1 / 0950-1255/1015-1320 2340-0245+1/ 2340-0245+1	화,수,토,일	DIRECT
	OZ951/OZ953	화2345-0735+1 수,토2345-0735+1 / 2345-0245+1	화,금,토	HAN병합노선
HAN	OZ733	1930/2225	DAILY	DIRECT
	OZ389	수,금,일00020-0315/0040-0335/0020-0315		
	OZ933	화0040-0310/목0055-0325		
	OZ931	금0055-00325		
	OZ951	화,금,2345-0215		
NRT	OZ102	월,화,수,목,금,토,일 0900-1120	DAILY	DIRECT
	OZ106	월,화,수,목,금,토,일 1545-1815		
	OZ108	월,화,수,목,금,토,일 1830-2100		
	OZ194	화 1050-1330		
	OZ198	수,금,일 1345-1625		
TPE	OZ711	월~일 1015-1150	DAILY	DIRECT
	OZ713	월~일 1420-1550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PVG	OZ0987 OZ0947	DAILY / 일자별 상이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곽지연 매니저 (070-5096-0004)
HKG	OZ745	DAILY / 1925-2240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김정은 매니저 (070-5096-9384) 한효정 매니저 (070-5096-9366) 윤현빈 매니저 (070-5096-9893)
	OZ967/OZ969	화,수,토,일 / 일자별 상이	화,수,토,일	DIRECT		
	OZ951/OZ953	화,수,토 / 2345-0735+1	화,수,토	HAN병합노선		
HAN	OZ733	DAILY / 일자별 상이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NRT	OZ102	DAILY / 일자별 상이	DAILY	DIRECT	전일 17시	지민정 매니저 (070-5096-9340)
TPE	OZ711	DAILY / 0945-1140	DAILY	DIRECT	전일 17시	김지희 매니저 (070-5096-9470)

부 산

해상 물류 동향



중 합 SCFI 2주 연속 상승, 美中 90일간 관세 115% 인하에 전격 합의

- 합의 후 中→美 관세는 30%. 中재고소진 의지, 美재고보충 수요 그리고 향후 불확실성이 맞물려 미국항 부킹 증가세. 4월부터 공급 축소 극대화된 점 고려시 단기 운임 강세 예상
- 90일 후 정책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입사의 사전선적 정도, 선사사의 북미항로 복원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美소비의 회복 여부가 향후 물동량 및 운임에 큰 변수로 작용
- 일각에서 팬데믹 당시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으나, 당시 美소비 폭발의 원인이 유동성 확대에 의한 구매력 상승인 반면, 현재는 소비 증가가 아닌 美 현지 재고 보충 수요가 주

미주항로 美 서안 4주 연속 상승, 인하 합의 후 선적량 빠르게 회복하며 급등세

- 상호관세 후 대규모 공급 축소가 진행됨에 따라 단기 선복 부족에 따른 운임 인상 요인 증가. 4월 대비 50~200% 부킹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으며, 선사들은 5/15 부 \$1,000 GRI를 발표, 6월 추가 GRI와 함께 서부항 40"는 \$6,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중
- 강세 지속 여부는 미국의 구매력 회복 여부 및 공급량 복원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관세는 30% 인상되었으며 단기 운임 인상분 고려 시, 업체들이 증가된 비용을 감수하면서 수입을 극대화 시킬지는 미지수, 필요량 선적 후 관망세 전환 가능성도 존재
- 고려해운은 북미항로 분위기 전환과 동시에 롱비치항 신규 서비스 개시 발표, 운임 상승 요인 으로 인해 중소선사들의 미주 신규 진출 및 서비스 재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유럽항로 5주 연속 하락, 수요 둔화 속에 공급 증가 영향

-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운임 약세 계속. 관세 합의를 계기로 유럽항로에 추가된 선복의 북미항로 재배치가 이뤄지며 추후 유럽항로 공급량 축소 예상,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유럽 주요 항만 사정 고려 시 주간 단위 실질 공급량은 더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
- 수에즈 운하는 대형 컨테이너선 통항료 15% 할인을 발표하며 선사들의 빠른 복귀를 추진 중. 하지만 현재의 약세 기조가 장기화 될 경우 운하 조기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연근해/기타 동남아 3주 만에 소폭 상승

- UBS는 중국의 올해 GDP성장률을 3.7~4%로 상향(기존 3.4%)했으며 모건스탠리도 2분기 기준 성장 전망(4.5%)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이번 합의는 아시아역내시장에도 호재로 작용

「미-중 무역 관세 유예로 컨 물동량 회복 기대」(헬레닉쉬핑뉴스_25.5.14.)

- 미국과 중국의 관세유예 합의로 컨테이너 시장은 물동량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
- 전월 발생한 미중무역 상호관세로 Maersk, MSC 등 글로벌 선사가 일부 정기노선 운항을 중단 또는 취소를 검토하고, 다른 선사들은 소형 선박으로의 전환을 고려한 바 있음
- 美 LA항 관계자는 관세 인하가 좋은 소식이지만, 중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30% 관세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부 필수품의 경우 재고 확보 움직임으로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중국의 90일 관세유예로 인해 중국발 미국행 해상 운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해운사들이 6월부터 스팟 운임을 두 배 이상 인상하며 최대 \$8,000/FEU까지 인상을 예고함
- 화주들은 관세 유예기간 내 선적을 서두르고 있으며, 운임 급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음.

지점소식

- 2025년 6월 휴일 안내
 - 6월 휴일이 없습니다.

물류동향

- 홍콩에어카고와 터키쉬카고, 신규 양해각서 체결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홍콩에어카고는 터키쉬카고와 양해각서(MoU) 체결 했으며 이 양해각서는 코드 셰어, 화물기 협력, 주요 국제 노선 연결성 확대를 중심으로 항공화물 운영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모색 및 양사의 운영 전문성과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전 세계에 더욱 효율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화물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미중 무역 갈등으로 케세이퍼시픽 화물 사업 감소
 - 케세이퍼시픽 항공의 화물 사업이 미중 무역 긴장으로 인해 중국-미국 간 전자상거래 물량 감소 되었으며 전세기 운항 취소, 운송료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제트유 가격 하락으로 인한 유류비 절감으로 손실을 줄 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일 본

지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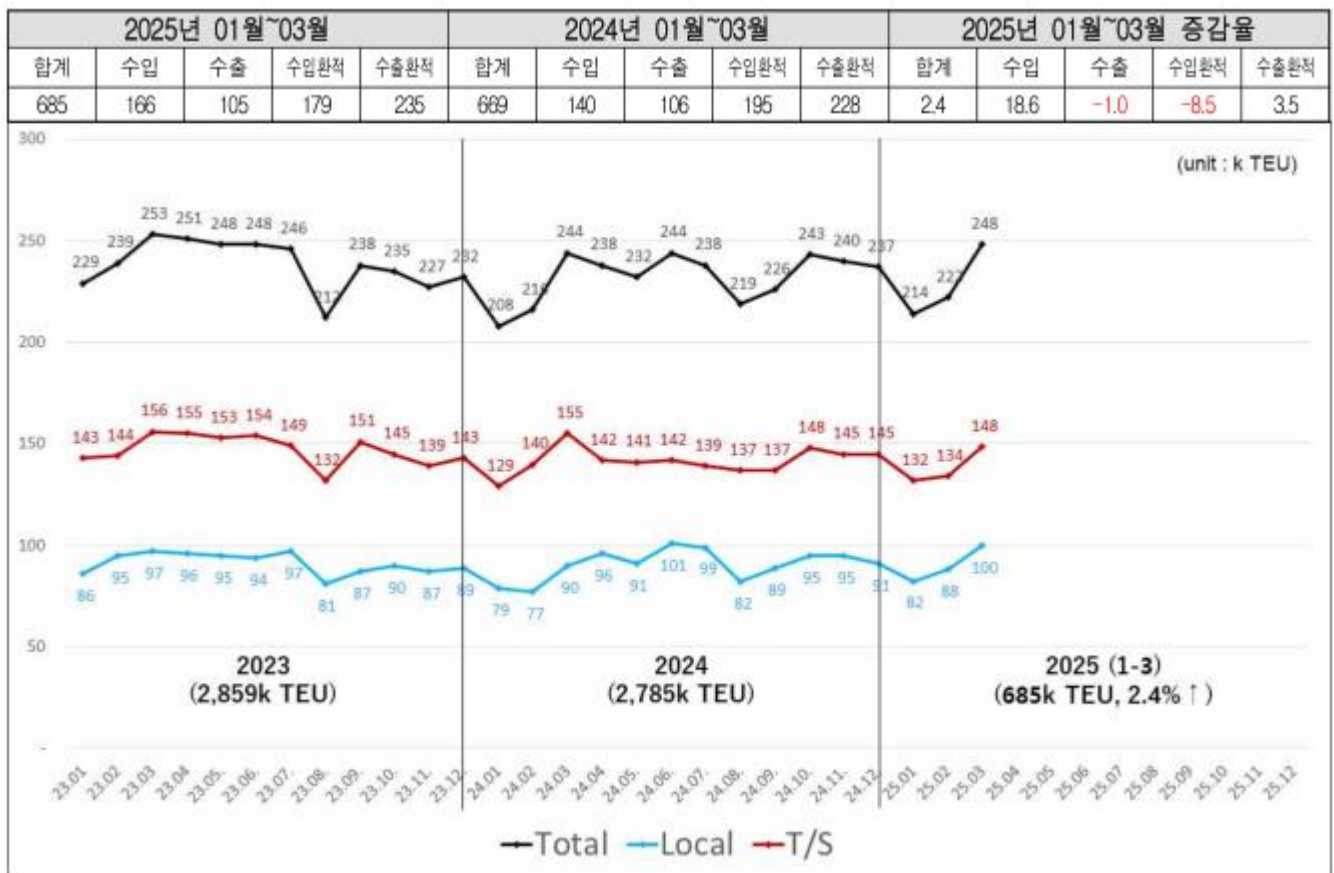
2025년 6월 공휴일 : 없음

물류 동향

/// 해상 ///

□ (부산-일본 물동량) 685천TEU 처리 (2.4% ↑)

* 수출입 271천TEU (10.2% ↑) / 환적 414천TEU (2.1% ↓)



일 본

● 2024년 일본 서안항만의 국제 내항피더 실적, 항만 간 명암 뚜렷

□ 2024년 국제 내항피더 물동량 마이즈루항, 사카이항 급증, 아키타·사카타항 등은 정체

- 마이즈루항의 국제 내항피더 물동량은 전년 대비 약 69%, 사카이항은 전년 대비 약 46% 증가하였으며, 수요가 많은 화물은 대만향 수출 화물임
- 2024년 글로벌 해상운임 상승으로 동남아향 수출 화물의 부산항 환적 시 스페이스 확보가 어려워지며 고베항 경유로 전환되며 스팟 이용이 급증
- 반면, 아키타항이나 사카타항의 내항피더 화물 취급량은 부진하였으며, 이는 지리적 조건상 부산 환적이나 국내 육상운송이 더 편리하다는 판단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임



일 본

● 일본 화주들의 북미노선 서비스 협상 막바지, 전년도 운임 상회

- 컨테이너 선사와 일본계 화주 간 2025년 북미 항로에 대한 서비스 계약(SC) 갱신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 제조업체 등 대형화주(BCO) 협상은 대부분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NVOCC와 협상이 진행 중
- BCO와 체결된 운임수준은, 2024년 대비 일정수준 인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관세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면 의외로 견조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다만, 북미 항로는 향후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만큼, 일부 SC 계약에서는 계약 기간 중 조정 가능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이미 합의된 MQC(최소물량조건)를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 2024년의 교훈 : 낮은 운임 vs 부족한 공간
 - 2024년도 SC 협상은 당시 운임 시황의 약세로 인해, 운임이 전년 대비 대폭 인하된 수준에서 타결되었음
 - 그러나 홍해 정세 악화로 5월 전후로 운임이 급등했고, 특히 중국발 스팟운임 급등으로 일본 화주들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이런 배경에서 일본 화주는 2024년 낮은 운임을 택하고 공간확보를 포기했던 경험을 반영해, 2025년 협상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대응함
 -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관련 선박 입항료 부과, 상호 관세 부과 등 부정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결국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는 운임으로 계약이 타결된 것으로 보임
 - 다만, 협상이 늦게 타결된 계약일수록 운임 인상 폭은 작았던 것으로 추정
- 서비스 계약 조건에는 항로환경 변화에 따른 조정 조항을 포함시키는 사례도 다수 나타남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입항료 제안이나 상호 관세 부과, 또는 이와 관련된 돌발적인 정책 변경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선사 측이 방어 조치로서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 있음
 - 선사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입항료가 부과될 경우 이를 화주에게 전가할수 있도록 하는 '할증료 조항'을 설정하는 방식임
- 북미항로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항로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음
 - 미국의 대중국 관세인상 조치에 따라 일부 컨테이너 선사들은 북미 항로를 잇달아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처럼 급격한 노선축소는 북미→아시아 공'컨 회송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됨
 - 또한, 90일간의 상호관세 정지조치로 동남아발 화물 증가 가능성도 존재하나, 그동안 중국에 집중 배치되어 있던 공 '컨을 동남아로 즉시 전환시킬 수 있는지 등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지점 소식

- 2025년 06월 공휴일 없음

-경제 동향 및 전향-

차세대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는 베트남 항공 산업

현재 베트남의 항공기 제조 산업은 완제품보다는 부품 제조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시장 규모에 대한 명확한 통계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주요 글로벌 부품 제조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에서도 지원 및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주력 산업분야 중의 하나이다. 국제 항공 운송협약(IATA)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에서 5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 시장으로 2035년까지 1억5000만명의 항공 승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의 항공 여객 수는 1억 9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국제선 여객의 수는 4140만명, 국내선은 6800만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26% 증가. 15% 감소하였다 항공화물의 경우 베트남 국내 공항을 통한 화물 처리량은 약 140만 톤으로 이 중 국내 수송량은 20만 톤 국제 수송량은 120만 톤에 달한다. 이러한 항공 수송수요에 맞추어 2021~2030년 기간 동안 베트남 내 운항 여객기의 수는 연평균 9.6%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30년까지 승객 처리량은 2억 7800만명, 화물 처리량은 41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인스턴트 라면시장 동향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베트남의 HS CODE 190230 품목의 판매액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3년 들어 성장률이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수요 안정화, 물가 상승, 건강 중시 소비 트렌드, 소비 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2024년 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029년에는 약 18억 891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대 한국 인스턴트 라면 수입액은 2018년 약2651만 달러에서 2023년 4094만 8000달러로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약35.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 증가와 함께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의 주요 인스턴트 라면 수입국으로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등이 있다 2023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다 이는 베트남 라면 수입액 중 53.2%의 비중을 해당하며 20219년 이후 계속해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점 소식

-경제 동향 및 전향-

항공

- 아시아나 항공 호치민발 여객기 wide body 에서 narrow body 로 변경되며, 화물짐 서비스 중단
- 타 캐리어 스페이스에 영향.
- 6월 항공운임은 비수기인 관계로 5월과 큰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

해상

- 호치민 PORT CONGESTION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대략 2 ~ 5일정도 delay 지속
- 미국 관세 영향으로 인하여, 호치민발 미주항 6월부터 급격히 상승 예상.

호치민

-경제 동향 및 전망-

빈그룹 '600억달러' 북남고속철도 수주하나...총리, 투자계획 검토 지시

팜 민 쯔(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빈스피드(VinSpeed)의 북남고속철도 투자계획에 대한 적극검토를 각 부처에 지시하고 나서면서 빈그룹(Vingroup 증권코드 VIC)의 초대형 국책사업 수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빈스피드는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의 팜 넷 브엉(Pham Nhat Vuong) 회장이 51%를 출자해 설립한 자본금 6조동(약 2억3110만달러)의 고속철도 전문 개발업체다. 나머지 지분은 브엉 회장 가족 기업과 장·차남이 보유하고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쯔 총리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빈스피드가 제출한 북남고속철도 투자 계획의 시행 가능성과 투자 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건설부와 재정부, 중앙은행(SBV) 등 관련 부처와 기관에 지시했다.

앞서 빈스피드는 지난 6일 쯔 총리에게 북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투자 방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당초 당정이 북남고속철의 막대한 사업비 규모 때문에 공공투자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빈그룹의 과감한 행보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 국회가 승인한 결의안에 따르면, 북남고속철도는 총사업비 1713조동(약 660억달러)이 투입되는 베트남 역사상 최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사업이다.

하노이 응옥호이역(Ngoc Hoi)부터 호치민 투티엠역(Thu Thiem)까지 20개 성·시를 통과하는 길이 1541km, 설계 속도 350km/h(1435mm 표준궤간)의 여객중심 복선으로, 제한적인 화물운송과 동시에 유사시 국방안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된다. 완공시 국토 종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5시간으로, 북부-중부-남부지방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된다.

빈스피드는 토지보상 및 재정착 지원비용을 제외한 사업비를 1500조여동(약 580억달러)으로 추산, 이중 20%인 312조3300억동(약 120억2990만달러)을 직접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부에서 35년간 무이자 차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완공 및 개통 일정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오는 12월 이전 본사업에 나서 5년뒤인 2030년 12월 이전 전구간 운행에 나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출상환과 관련, 빈스피드는 빈그룹 및 부동산개발 자회사 빈홈(Vinhomes 증권코드 VHM)과의 협력으로 대중교통지향형개발(TOD)에 따른 도심지역을 개발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빈스피드는 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설 여러 지방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허용 등의 특별정책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이 밖에도 빈스피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속철도 산업 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 기간인 99년간 기관차 등 모든 철도 장비·기계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적용하고, 좌석별 최소 운임을 국내선 항공요금 상한의 60~70% 수준 허용을 당정에 건의했다.

이러한 빈스피드의 투자 계획에 쯔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는 지난 15일 "빈스피드의 북남고속철도 투자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투자형태의 변경과 사업시행을 위한 일부 특별정책 적용은 유관 당국의 검토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률을 검토해 정기국회 9차 회기중 제출을 소관 부처들에 지시했다.

지점소식 - Branch news

- HR : 휴일 안내 (03JUN2025)

물류 동향-항공

수완나폼 공항, 58,0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화물센터 개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모범 사례 구현

태국 공항공사(AOT)는 수완나폼 공항(BKK)을 아세안(ASEAN) 지역의 선도적인 항공 물류 허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 찬 전략을 발표했다. 이 비전의 핵심은 기존 웨어하우스 4 인근에 5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물류 센터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다.

AOT의 기업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 대행인 파위나 자리야티폰은 최근 공항 자유무역지구와 화물 창고 내 운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 카고 네트워크 2025 " 이니셔티브 출범을 주재했다. 이러한 강력한 외부 관심은 태국의 항공화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카고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태국의 항공화물 시스템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OT는 급성장하는 국제 화물 사업을 지원하고 세계 경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항공 화물 생태계 구축에 집중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은 벌크 활용 프로그램(BUP)의 활성화이다. 이 프로그램은 화물 처리 용량을 크게 늘리고, 항공기로의 상품 인도를 가속화하며, 궁극적으로 화물 운영사의 장기적인 물류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데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

AOT는 현재 태국 항공사들이 수완나폼 공항의 주요 화물 터미널에 BUP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에는 Thai Airways International Plc와 WFS-PG Cargo Co Ltd가 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BUP 모델은 홍콩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 등 세계 유수 공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이다.

Air market review/update

Note 1. LJ Narrow body로 전환운영 하여 OZ/KE/TG만 와이드 바디 운영중으로 망고 등 신선 제품 피크 시즌과 맞물려 스페이스 확보가 매우 어려움. 다만 5월 KE 화물기가 주 2항차 운영중

Note 2. 에어인천의 아시아나 인수로 인해 6월 이후 스페이스 동향 및 영향 발생 예상

방 국

물류 동향-해상(수출)

태국 산업, '트럼프 관세'에 대비...2000억 바트 수출 타격 예상

태국 산업경제청(OIE)은 새로운 "트럼프 관세"로 인해 2025년 태국의 산업 수출이 약 2,000억 바트(약 3,0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다. 이러한 타격으로 산업 GDP 성장률이 1.02%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OIE는 9개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OIE는 당초 2025년 산업 GDP 성장률을 1.5~2.5%로 전망했으나 미국의 관세 조치가 임박함에 따라 이 전망치는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수입 관세 인상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할 시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OIE 사무총장 파사콘 차이랏은 크룽텐 투라키즈에게 미국이 2025년 4월 태국에 36%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했지만, 협상을 위해 시행이 90일 지연되었다고 했다. 그는 2025년 7월 이후 태국의 경제 전망과 무역 정책 방향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이 태국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파사콘은 태국 산업이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 심화에 직면하여 수출이 기존 태국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저렴한 상품의 태국 시장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고질적인 가계 부채 또한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 산업 구조 조정 이니셔티브는 세계 수요에 부응하도록 산업을 적응시키고, 회복력을 구축하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OIE는 이러한 전면 개편을 위해 제조업 GDP의 70%를 차지하는 9개 목표 산업 부문(자동차,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바이오 기반 산업, 식품, 의료기기, 철강 및 야금)을 지정했다.

Ocean market review/update

Note 1. 튀리안, 망고 시즌에 따른 신선 수출 피크로 리퍼 컨테이너 장비 부족 발생. 일부 선사의 베슬 일체가 튀리안인 경우도 있을 정도이나 6월 중순 이후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Note 2. 관세 유예 발표 이후 미주착 운임의 인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5월 상반기와 하반기 운임이 약 30%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주착 수출 물동의 증가로 인해 스페이스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Note 3. 램차방 포트의 심각한 혼잡 발생 : 관세 유예로 미주착 선적 폭등 및 1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 등으로 인해 물동량이 증가하여 심각한 혼잡 초래. 컨테이너 반출 등에 반나절에서 종일이 소요되며 차량 확보에 이슈 폭증하고 있다.

방 국

물류 동향-해상(수입) - 태국 항만청, 창립 74주년 맞아 역대 최대 이익 기록**램차방 확장 및 내륙 허브 계획이 가속화되면서 고수익이 발생**

태국 항만청(PAT)은 창립 74주년을 화려하게 기념하며 76억 4,800만 바트의 사상 최고 이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호실적은 2025 회계연도 상반기(2024년 10월~2025년 3월)에도 이어졌으며, 순이익은 35억 바트를 기록했다. 태국 항구에 정박한 선박 수는 7,371척으로 1.95% 증가했다.

화물 처리량은 5.10% 증가한 6,168만 톤을 기록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5.35% 증가한 556만 TEU를 기록했다. 특히, 라농 항은 미얀마와 연결된 물류 산업의 확대에 의해 수입 및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치앙센 상업 항의 꾸준한 성장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PAT는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 건설에 중점을 둔 램차방 항 3단계 확장 사업의 1단계는 2025년 5월 기준 68.30% 완료되었고 내륙 건항(dry port) 건설 계획 또한 교통교통정책기획국(OTP)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콘깬 주는 적절한 입지와 강력한 지역 지원을 바탕으로 최초 건설지로 선정되었다. 나콘랏차시마, 나콘사완, 아유타야(파치역), 라차부리(농뽐라독역)에 건항 후보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이며, 향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마나폰 차로엔스리 교통부 차관은 태국 교통부(PAT)가 5개 항만에서 74년간 발전해 온 경험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증가하는 화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국을 선도적인 지역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인프라, 기술 및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강조했다.

Note. 1 수출 물동량 및 1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 등으로 인해 물동량이 증가하여 심각한 혼잡 초래하고 있으며 심각한 혼잡 등으로 트럭 기사 등의 업무 기피 및 항구 입구를 막고 데모 등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음.

페낭

지점 소식

- 2025년 06월02일 국경일 : 국왕 탄생일
- 2025년 06월07일 국경일 : 하리라야 코르반(하지)
- 2025년 06월27일 국경일 : 이슬람교 신년 아왈 무하람

-경제 동향 및 전향-

1. 미국, ASEAN 공동협상 거부
 - MITI(통상산업부)는 미국이 다자 협상보다 양자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는 협상에 참여하였지만, MITI는 말레이시아 E&E산업내 미국계 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할것이라 언급.
 - SAMENTA(중소기업협회)는 서비스및 소매업계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경고하며 정부지원확대를 촉구
2. MKFTA (10월예상)통해 말레이시아산 냉동 두리안 수출 확대 모색
 - 말레이정부는 25년내 MKFTA(한-말 FTA)체결을 가시화하며 냉동 두리안 등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중
 - 한국의 까다로운 식품안전기준은 넘어야 할 산
 - FTA를 통한 녹색경제,디지털 무역, 바이오경제 분야 협력 기대
3. 페낭, 말레이시아 최초의 주정부 할랄산업개발위원회 출범
 - 페낭에는 할랄인증기업 870개가 소재하며, 수출주도형 성장을 목표
 - NIMP 2030 및 국가 할랄정책을 기반
4. 말레이시아, 철강 및 주석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 중국,인도,일본,한국산 제품에 부과
 - 관세율은 4.48%~36.8% 범위내이며, 25년5월11일부터 5년간 부과
 - Perstima(말레이시아 전기주석 도금강판 생산업체)의 청원이 인정됨에 따른 조치

-항공 서비스-

- Route: PEN → ICN (화물기)

기존 주5회에서 주6회로 증편. 미국 관세여파로 인해 중국발착 노선을 동남아노선으로 대체 중.

편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ETD	ETA	TYPE
KE 0342								8:20	18:40	77X Freighter
KE 0350								10:50	18:05	77X Freighter
KE 8342								8:00	15:15	77X Freighter
KE 8364								14:00	21:15	74Y Freighter
KE 8366						sol		10:40	17:50	74Y Freighter
KE 9364								14:00	21:15	74Y Freighter

증 경

지점소식

- 안정적인 반도체 및 전자제품 수입/수출 및 국내운송 업무제공
- 반도체 생산공장 창고업무 외주 받아 고객과 화물 특성에 따라 Sorting 및 보관 Service 제공
- 충칭 지점 주요 핸들링 지역
CKG/CTU/WUH/CSX/CGO/XIY

물류동향

1. 대외무역 운행의 총체적 태세

ㄱ.규모와 성장률

1~4월 수출입 총액은 226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5월 한 달 동안 650억 원을 돌파하여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무역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 지난 4월 15% 증가한 988억 1000만 원으로 43.6% 로 높아졌다

ㄴ.시장 주체의 활력

민영기업의 수출입은 1124억원(23.1% 증가)으로 49.6% 에 도달한다
실적 있는 기업 3800개 초과, 신규 기업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분야에 집중했다

2. 중점산업의 표현

ㄱ.전자 제품

노트북 수출 477억 2천만 원, 전국 순위 1위 유지
휴대폰 수출 165억 7000만원, 성장속도 전국 16.9% 포인트 초과

ㄴ.자동차 오토바이 산업

오토바이 수출 88억 원, 71.3% 증가
전기 자동차 수출 94% 증가, 테슬라 등 기업은 충칭 구역 분배센터 가속배치

3.중미 관세 정책이 충칭 대외 무역에 영향 분석

ㄱ.무역총량과 구조충격

전 세계 해운무역의 근성이 나타났다. 현재 미국의 일련의 관세조치는 전 세계 해운무역량의 1.5%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2018~2019년 무역전 시기에 비해 영향이 높지 않지만 특정상품분야에 대한 영향은 격화되었다.충칭은 내륙 개방 중심로서 5월 장강 바지선 과수원항 철/수 복합운송이 전체운송 대비 35% 차지했고 다방식 복합운송체계통해 통해 관세충격을 완화시켰다.

기업 종합 원가 상승: 중국산 상품 종합 원가는 125% 의 관세로 60~80% 에증가했고, 충칭 가구, 기계 제조 등 전통 수출 업계의 이윤 공간이 마이너스로 압축되었으며, 일부 기업은 생산 능력을 베트남에 이전 계획을 가동했다.

중 경

ㄴ. 중점업종의 영향분화

전자제품산업

단기적인 압력과 장기적인 전환: 미국은 중국 선박에 대해 특별 항구비를 징수하고 미국계 선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며, 충칭 전자제품의 "48시간 글로벌 도달"공수 시효성을 위협한다. 그러나 반도체 반제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5월에 충칭시 전체 수출 증가량 60% 를 초과하여 산업근성을 보여주었다.

자동차 오토바이 산업

전기 자동차가 역행하여 포위를 돌파: 5월 충칭의 전기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94% 에 도달했고, 테슬라 지역 분배 센터 중심 설립가속화하여 자유무역구의 "무관세 + 가공 부가가치"정책을 이용하여 관세 원가를 상쇄했다. 그러나 오토바이 수출은 미국의 수입품 25% 관세 재개 리스크있어 주문 유출률은 30%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동향

• 2025/6월 항공수출 스케줄

YEAR /MONTH	DEPT	항공사	FLT TYPE		DIRECT / T.S	Route		MON	TUE	WED	THU
			(P/C)	기종		출발지	도착지	FLT. NO.	FLT. NO.	FLT. NO.	FLT. NO.
6월	CKG	OZ354	P	321	D	CKG	ICN	OZ354	OZ354	OZ354	OZ354
	TFU	OZ324	P	321	D	TFU	ICN	OZ324	OZ324	OZ324	OZ324
	CKG	CA439	P	B738	D	CKG	ICN	CA439	CA439	CA439	CA439
	CTU	KJ212	C	B737	D	CTU	ICN				KJ212
	TFU	3U3973	P	A320	D	TFU	ICN		3U3973		3U3973
	XIV	KE812	P	A330	D	XIV	ICN	KE812	KE812	KE812	KE812
		KE0328	C	B747F							KE0328
	XIV	CF201	C	B737F	D	XIV	ICN		CF201		CF201
	CKG	CI5998	C	747F	T	CKG	TPE			CI5998	
	TPE	CI0160	P	333	T	TPE	ICN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2	P	333				CI0162	CI0162	CI0162	CI0162
	CKG	BR0678	C	B77X	T	CKG	TPE				BR0678
	TPE	BR0160	P	789	T	TPE	ICN	BR0160	BR0160	BR0160	BR0160
		BR0170	P	333				BR0170	BR0170/321	BR0170	BR0170/321
	CKG	CX3261	C	74Y	T	CKG	HKG			CX3261	
		CX053	C	74Y					CX053		
		CX945	P	32Q				CX945	CX945	CX945	CX945
		CX416	P	333				CX416	CX416	CX416	CX416

심 천

지점 공휴일 May 31st (Sat) to June 2nd (Mon) - Loong Boat Festival

1. 해운 동향

- 항구 혼잡 상황:

선전(深圳) 옌텐(盐田)항과 광저우(广州) 난사(南沙)항의 5월 물동량이 증가했으나, 동남아시아 노선 수요 급증으로 인해 일부 선박이 1~3일 지연되고 있습니다. 6월 중순~하순 출하 피크를 피해 사전에 선적 예약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 옌텐(盐田)항 확장

옌텐항 동부 작업구 자동화 터미널 1단계 공정 가동 시작, 처리 능력 300만 TEU 이상 증가, 대만만(大湾区) 해운 효율성 향상.

미국 서부/동부 주요 항구를 연결하는 2개 신규 미주 노선(CMA CGM, COSCO) 추가.

- 항로 조정

MSC, ONE 등 일부 선사가 동남아 노선을 다찬완(大铲湾)항으로 전환, 옌텐항 혼잡 완화. 홍해 분쟁과 성수기 물량 증가로 6월부터 운임 소폭 상승(극동-유럽 노선 약 10% 인상).

- 운임 변동:

유럽-미국 노선 운임이 소폭 상승(약 5%~10%)했으며, 중동/인도 노선은 안정적입니다. CMA CGM 등 일부 선사가 6월 한정 특가 캐퍼시티(화물 적재 공간)를 제공 중입니다. (예: 화난(华南)~지중해 노선).

2. 항공 동향

- 선전 공항 운송 능력:

5월 전자제품·의류 등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화물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선전 공항에는 멕시코시티·리야드 전용 화물기 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6월부터 일부 항공사가 아시아-태평양 구간 FSC kg당 약 0.5달러 인상 될 예정입니다.

- 심천 신규 국제 화물 노선

5월에 순펑(顺丰) 항공, 선전-인도 델리, 6월에 선전-사우디 리야드로 전용 화물기 노선 추가, 주요 아이템은 이커머스 및 전자제품입니다.

선전 공항 국제 화물기 운항 횟수 전년 대비 15% 증가, 주요 북미/중동 화물량 증가 되었습니다.

- 시설 현대화

선전 공항 제3활주로가 올해 내로 정식 운영 전 테스트 예정이며, 화물 구역에 스마트 냉장 창고가 도입되어 신선식품 및 의약품 운송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심 천

3. 정책 및 통관

- 전자상거래 지원

광둥 자유무역구(첸하이[前海], 난사[南沙])에서 "빠른 통관" 모델 시행 중이며, 6월 말까지 더 많은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통관 시간이 3시간 이내로 단축됩니다.

- 세관 화물검사 강화 품목:

리튬배터리, 완구 등 수출 품목에 대한 세관 검사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인증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4. 중유럽 열차(광둥 출발)

- 증편 운영:

5월부터 둥관(东莞) 스톡(石龙)·광저우 달랑(大朗) 역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독일 뒤스부르크로 주간 열차가 추가되어 운송 기간은 15~18일로 안정적입니다.

보조금 정책:

6월 말까지 열차를 이용해 전자제품·가전을 수출하는 경우 운임의 약 5%~8%를 지방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리스크 정보

- 기상 영향

6월은 광둥의 태풍 시즌으로 항구 작업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상 경보와 물류 지연 보험 확인 필요합니다.

홍해 항로 일부 선사가 여전히 희망봉을 우회하여 유럽 노선 운송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추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권장 사항:

6월 "618" 전자상거래 행사 전후로 스페이스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스페이스 상황 확인 필요.
광저우 무역박람회 이후 주문 물량으로 인한 5~6월 물류 수요 증가 예정.

6. 업계 전망

- 해운: 단기 운임 변동성 지속, 엔텐항 자동화로 장기 경쟁력 강화.
- 항공: 이커머스 및 첨단 제조업(드론, 리튬배터리 등) 수요를 견인하며, 중동/남아시아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데이터 기준 2024년 6월 중순, 실제 운영 상황과 다를 수 있음.)

심 천

항공 서비스

- Route : SZX → ICN

AIRLINE	FLIGHT	ETD	ETA	TYPE	
CZ	CZ3089	8:40	13:40	A320-251N	passenger plane
ZH	ZH633	9:05	13:50	737-87L	
	ZH631	11:05	15:40	A320-251N	
KE	KE828	12:45	16:40	A330-323	
OZ	OZ372	13:50	18:05	A330-323	cargo aircraft
UPS	5X0196	03:31	08:06	B767F	

해상 서비스

- Route : SHENZHEN --> BUSAN/INCHEON

POL	POD	Carrier	SKDL
SHEKOU	BUSAN	KMTC	Week 7~10 Voyage
		HEUNG-A	Week 4~5Voyage
		PAN OCEAN	Week 2~3Voyage
		CK LINE	Week 2Voyage
		SITC	Week 3Voyage

POL	POD	Carrier	SKDL per Week
SHEKOU	INCHEON	KMTC	Week 6~7 Voyage
		HEUNG-A	Week 3 Voyage
		PAN OCEAN	Week 3 Voyage
		CK LINE	Week 3 Voyage
		SITC	Week 2Voyage

보세구 서비스

Route: 해외 ---> 중국 보세구---> 중국 고객사 / 해외 고객사

- 1) 보세 운송 및 Storage
- 2) 명의 대행 수출/입 통관
- 3) C/L 라벨링 작업, Repacking 작업
- 4) Trucking, Loading/Unloading



지점소식

2025년 6월 HOLIDAY: 2025/5/31~2025/6/2 Dragon Boat Festival

물류동향

1. '제137회 중국수출입박람회(캔톤페어)'가 5일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4일 기준 219개 국가(지역)에서 28만8천900명의 역외 바이어가 캔톤페어 현장을 찾았으며, 이는 지난해 봄 같은 기간에 열린 '135회 캔톤페어'보다 17.3%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장에서 체결된 수출 의향액도 3% 늘어난 254억4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두 지표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출처: 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2. 최근 SHENZHEN 세관에서 수출 화물에 대한 검사 및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화물이 보세창고를 통해 통관 완료되고 컨테이너 적재를 마쳤더라도 출고 신청(2차 통관) 단계에서 세관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심사 보류(卡审结)'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관원 직접 심사/심사과 이관) 이와 관련한 리스크는 하기와 같습니다.

① 심사 보류 확률:

최근 SHENZHEN PORT에서 심사 보류율이 현저히 증가했으나, 특정 화물이 선정될지는 세관 무작위 결정으로, 당사에서 예측 또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② 일정 영향:

일단 심사 보류되면, 출고 신청은 세관 총국 심사로 이관되며, 처리 기간은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하기와 같습니다.

☒ 선박 출발 지연 (후속 항차로 변경 필요)

☒ 추가 보관비 발생 (예: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출처: Cargo news'亞->美 노선 화물 공급력 '18%' 확대>

3. 태평양 항로 해운사들, 6월 운임 대폭 인상 예고.

미국과 중국의 90일 관세 유예로 인해 중국발 미국행 해상 운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해운사들이 6월부터 스팟 운임을 두 배 이상 인상하여 최대 \$8000/FEU까지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화주들은 관세 유예 기간 내 선적을 서두르고 있으며 운임 급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상해항운교역소, Howe Robinson, 주요 전문지 등>

물류동향

4. 미국 행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중국, 홍콩발 전자상거래 등 소액 화물에 대한 건당 800 달러 이하의 수입 물품에 대한 증가세율을 기존 120%에서 54%로 낮추면서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노선에서 공급력이 바로 확대되고 있으며, '로테이트(Rotate) 분석에 따르면 5월 셋째주 아시아와 북미노선의 공급력은 전주 대비 18%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이드바디 화물기 10대분의 공급력이 증가한 셈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전자상거래 화물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 조치하면서 다시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며 또 전체적인 대 중국 관세를 145%에서 30%로 인하 조정했습니다.

이같은 조치 이후 태평양 노선에서 공급력은 급격히 회복되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공급력은 여전히 10%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출처: Cargo news'亞->美 노선 화물 공급력 '18%' 확대>

5. 중국과 중남미 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37회 칸톤페어 참가 역외 바이어 29만 명 중 아르헨티나 바이어는 약 4천 명으로 전 회보다 90% 늘었습니다. 이 밖에 매년 약 6천 명에 달하는 브라질 바이어가 칸톤페어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중국 해관(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중남미 간 상품 수출입 총액은 5천184억6천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중국-중남미 간 물류 네트워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광저우항은 남미 항로를 집중 공략해 46개의 체리 특송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올해 4월 29일에는 광저우항의 첫 번째 남미 서안 직항 WSA3 노선이 정식 개통됐습니다. 광저우항 관계자는 해당 노선 개통이 웨강아오 대만구(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중심 지역의 가전·전자 제품, 가구, 완구 등 중국 제조 상품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속 노선'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도

지점 소식

- 2025년 04월30일 국경일 : 남부 해방 기념일
- 2025년 05월01일 국경일 : 노동절
- 2025년 05월02일 국경일 : 독립기념일

-물류시장 동향 및 전망-

🔗 1. 청도항 물동량 동향

2025년 5월 상반기 기준 청도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132만 TEU**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요 글로벌 항로의 물류 회복세 및 전자상거래 수출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수출 증가 품목: 전자제품, 기계 부품, 신선 식품

주요 목적지: 한국, 미국, 동남아시아 국가들

🔗 2. 항만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청도항 내 전기 트럭 도입: 탄소 배출 저감 및 친환경 물류 강화.

3. 협회 소식 및 네트워크 활동

한중 국제포워딩 실무자 교류회 개최 예정

일시: 2025년 6월 18일

장소: 청도 국제물류센터

주제: '2025 하반기 항로 전략 및 공동배선 협업 방안'

천 진

지점소식

- 2025년6월 HOLIDAY: 2025/5/31~2025/6/2 Dragon Boat Festival

물류동향

- CARRIER: 아시아나(OZ) TSN-ICN 구간 2025년6월 스케줄:
WED/SAT: 747-400 화물기(ETD/ETA: WED-1910/2050, SAT-1555/1735)
- CARRIER:OZ, TSN-ICN 구간 +300KG건 10 SHIPMENTS/MONTH 이상 경우
+300KG건들에 REFUND 가능
- 6월 유럽/미국향 항공&해상 운임은 계속 인상 조정
- XINGANG-BUSAN, DDU 조건 진행건 TEST 중이고 22 FEU 화물 선적했고
도착지 수입 통관 및 배송 진행 중, TEST 화물 성공되면 추후 계속 진행 예정



천진

물류동향

MSC 2025년6월 운임 업데이트

船东	启运港	目的国	目的港	船期	20'DV	40'DV	40'HC	40'NOR	效期	其余附加
MSC	天津	澳大利亚东岸	SYDNEY, 悉尼	参考最新XSHIP文件	750	1450	145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澳大利亚东岸	MELBOURNE, 墨尔本	参考最新XSHIP文件	750	1450	145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澳大利亚东岸	BRISBANE, 布里斯班	参考最新XSHIP文件	750	1450	145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澳大利亚西岸	FREMANTLE, 弗里曼特尔	参考最新XSHIP文件	750	1450	145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澳大利亚西岸	ADELAIDE, 阿德莱德	参考最新XSHIP文件	750	1450	145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新西兰	AUCKLAND, 奥克兰	参考最新XSHIP文件	700	1350	135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新西兰	WELLINGTON, 惠灵顿	参考最新XSHIP文件	700	1350	135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新西兰	LYTTELTON, 利特尔顿	参考最新XSHIP文件	700	1350	135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新西兰	NAPIER, 纳皮尔	参考最新XSHIP文件	700	1350	135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新西兰	TAURANGA, 陶朗加	参考最新XSHIP文件	700	1350	135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新西兰	PORT CHALMERS, 查尔姆斯港	参考最新XSHIP文件	1300	2550	255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新西兰	NELSON, 纳尔逊	参考最新XSHIP文件	800	1550	155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新西兰	BLUFF, 布拉夫	参考最新XSHIP文件	850	1650	165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新喀里多尼亚	NOUMEA, 努美阿	参考最新XSHIP文件	2300	4600	460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斐济	LAUTOKA, 劳托卡	参考最新XSHIP文件	2600	5200	520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斐济	SUVA, 苏瓦	参考最新XSHIP文件	2600	5200	5200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MSC	天津	大溪地	PAPEETE, 帕皮提	参考最新XSHIP文件	-	-	-	-	06.02 - 06.08	目的港用箱14天

ESL 2025년6월 운임 업데이트

船东	启运港	目的国	目的港	船期	20'DV	40'DV	40'HC	效期	其余附加
ESL	天津	阿联酋	JEBEL ALI, 杰贝阿里	转船	2635	2880	2880	06.07 班期	转船, 全程32天
ESL	天津	阿曼	SOHAR, 索哈尔	转船	2735	3080	3080	06.07 班期	JEBEL ALI 转
ESL	天津	阿曼	KHOR FAKKAN, 法坎	转船	2685	2980	2980	06.07 班期	转船, 全程36天
ESL	天津	阿联酋	SHARJAH, 沙加	转船	2685	2980	2980	06.07 班期	KHOR FAKKAN 卡车转运
ESL	天津	沙特	DAMMAM, 达曼	转船	2685	2980	2980	06.07 班期	转船, 全程34天
ESL	天津	沙特	RIYADH, 利亚德	转船	2935	3430	3430	06.07 班期	DAMMAM 转
ESL	天津	卡塔尔	HAMAD, 哈马德	转船	2935	3480	3480	06.07 班期	JEBEL ALI 转
ESL	天津	巴林	BAHRAIN, 巴林	转船	2735	3080	3080	06.07 班期	JEBEL ALI 转
ESL	天津	科威特	SHUWAIKH, 舒韦赫	转船	-	-	-	06.07 班期	OCR USD150/300/300到付
ESL	天津	阿联酋	AJMAN, 阿曼赞	转船	2835	3280	3280	06.07 班期	JEBEL ALI 转
ESL	天津	伊拉克	UMM QASR, 乌木卡萨	转船	-	-	-	06.07 班期	包含DTHC(usd195/20'usd275/40' , 委托上标期预付或者到付,OCRusd180/240,到付,ECRUSD50/100,到付,默认北港BTG20磅
ESL	天津	巴基斯坦	KARACHI, 卡拉奇	直航	-	-	-	06.10 班期	挂SAPT码头, 小箱货重26.5吨及以上, 每箱加收USD100超重量
ESL	天津	印度	NHAVA SHEVA, 孟买前	直航	2335	2480	2480	06.10 班期	含NOS USD100/TEU; 小箱货重26.5吨及以上, 每箱加收USD100超重量
ESL	天津	印度	PIPAVAV, 皮帕瓦	转船	-	-	-	06.10 班期	-
ESL	天津	印度	MUNDRA, 蒙德拉	直航	2335	2480	2480	06.10 班期	含NOS USD100/TEU; 小箱货重26.5吨及以上, 每箱加收USD100超重量
ESL	天津	印度	CHENNAI, 陈乃	转船	1935	2680	2680	06.10 班期	小箱货重26.5吨及以上, 每箱加收USD100超重量
ESL	天津	印度	VIZAG, 维沙卡帕特南	转船	1935	2680	2680	06.10 班期	小箱货重26.5吨及以上, 每箱加收USD100超重量